■ 고교 내신 절대평가 산출 방법은?

평균·표준편차 활용 가중점수 부여

내신 부풀리기·특목고 우대 우려도

교육과학기술부가 2014년부터 고교 내신제도를 절대평가 방식으로 전환하기로 방향을 정함에 따라 공정하고 변별력 있는 내신 성적을 어떻게 산출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와 함께 절대평가로의 전환에 대해 찬반 양론이 엇갈리고 있다.

16일 교육과학기술부 등에 따르면 2014년부터 적용될 예정인 절대평가 방식의 새로운 고교 내신제도는 기존의 수우미양가 등 등급제가 적용되는 방식과는 다르다. 우선 학생부에는 원점수·표준점수·표준편차·수강인원이 표기된다.

기존에는 상대평가 방식에 의해 산출된 등급(1~9급)을 표기해왔다. 외형적으로 볼 때는 '등급' 하나가 빠지는 셈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다. 지금까지 대학이 내신성적을 입학전형 요소로 반영할 때 등급을 써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2014년 전형을 실시하는 2015학년도 대학입시부터 각 대학은 수험생의 교과목별 원점수를 기준으로 내신을 자율적으로 산출하게 될 전망이다.

이 경우 특정과목에서 비슷한 성적(원점수)을 받은 학생들 간의 성적을 변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표준점수, 평균점수, 표준편차 등이 활용된다.

예를 들어 A, B고에 각각 재학 중인 두 학생이 수학에서 똑같이 90점을 받았더라도 A학교 전체 학생의 수학과목 평균 점수가 B학교보다 높았다면 B고에 재학 중인 학생에게 가중점수를 부여하는 식이다.

학생들의 성적을 보정하는 데는 평균점수, 표준점수, 표준편차, 이수학생수 외에 2013년까지 완성될 예정인 '과목별 성취도 기준'도 활용될 예정이다.

교과부가 현행 상대평가 방식의 내신제도를 전면 개편하는 배경에는 과도한 점수 경쟁으로 인한 고교수업 파행이라는 문제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가장 걱정되는 부분은 일선 학교들의 '내신 부풀리기' 경쟁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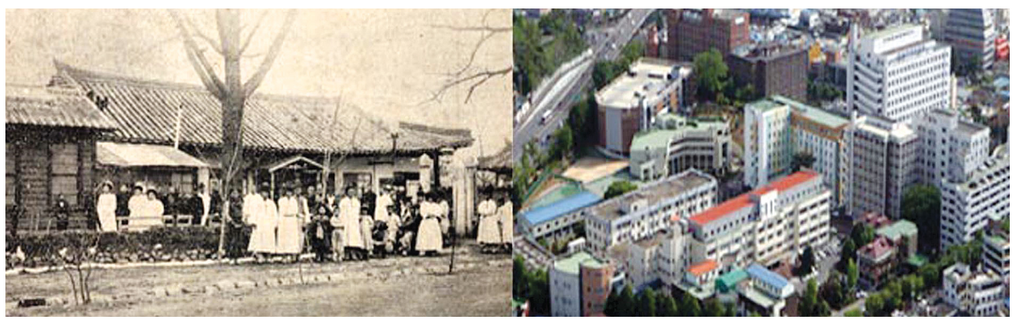
사실 교육당국이 2005년까지 유지해 온 절대평가 방식을 상대평가 방식의 9등급제로 전환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도 개별 학교의 '성적 거품'에 있었다.

이런 부작용이 다시 재연되면 학생을 선발하는 대학은 고교 내신성적을 불신할 수 밖에 없고 결국 내신 무력화라는 악순환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고려대 고교등급제 판결에서 보듯 일부 대학이 새로운 내신제도를 외국어고 등 특수목적고 출신 학생을 싹쓸이하는데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없지 않다.

이 때문에 전교조는 "절대평가로 바뀔 경우 대학들은 내신의 신뢰성과 변별력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반영 비중을 축소하고, 수능 이 비중이 커져 대학별 본고사 부활을 시도할 수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전남대병원이 오는 26일 개원 100년을 맞아 아시아 선도 병원으로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왼쪽은 전남대병원의 출발인 1910년 광주자혜원 개원 당시 모습이고, 오른쪽은 현 병원의 전체 건물을 공중에서 내려다 본 광경이다. 〈전남대병원 제공〉

전남대병원 인술 100년

호남 최고서 아시아 최고 병원 꿈꾼다

군의관 2·간호사 2명서 의사 828·직원 2800명으로

국립 전남대병원(원장 김영진)이 오는 26일로 개원 100주년을 맞는다. 1910년 광주 자혜의원부터 시작해 1세기 동안 호남의 최고병원으로 자리매김한 전남대병원은 100주년을 기점으로 호남 최고에서 아시아 최고 병원에 도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했다.

16일 전남대병원에 따르면 당시 광주 자혜의원은 광주·전남 최초의 관립의원으로 전남도 관찰부 서기청을 빌려 1층짜리 목조 기와집에 문을 열었으며 직원은 일본 군의관 2명과 간호사 2명을 포함해 모두 10명 뿐이었다. 구한말 백성에게 구료(救療)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한 자혜의원은 5년 뒤에 현재 전남대병원이 자리한 광주시 동구 학동으로 신축 이전해 기틀을 잡았다.

1925년 전남도립 광주의원으로, 1945년 광주의학전문대학교 부속병원으로,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에는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부속병원으로 각각 명칭이 바뀌었으며 그 역할과 위상도 나날이 성장했다.

전남대병원은 현재 본원과 화순전남대병원, 치과병원 등 2개 분원에 1738개 병상, 828명의 의사 등 280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하는 호남 최대의 종합전문의료기관으로 성장했다.

또 국내 최초 복강경 위암 수술에 성공하면서 의료 수준을 인정받았고 국립대병원 최초로 OCS(처방전달시스템)를 구축하면서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지난해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평가에서 전국 국립병원 중 1위를 차지했다.

전남대병원은 올해 개원 100주년을 맞아 특화전문병원체제 구축, 진료의 질 향상, 고객 감동 등 3가지를 목표로 제2의 도약을 꿈꾸고 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광주 동구 출산율 증가세 … 셋째 자녀도 는다

다양한 장려금 효과

그동안 전국 하위권을 머물던 광주시 동구의 출산율이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섰다. 셋째 자녀를 출산하는 가정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16일 동구에 따르면 올 들어 8월말까지 동구의 출생아 수는 42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390명)에 비해 8.2%(32명) 증가했다. 이는 2006년 이후 처음으로 동구의 출산율이 증가세로 돌아선 것이다.

동구는 첫째아이 출산가정에는 100만원, 둘째 200만원, 셋째 이상은 1000만원을 지원하는 전국 최고 수준의 지원책을 비롯, 저소득층 영·유아 가정에 월 3만원의 건강수당을, 보육교사에게는 월 3만원의 아이사랑 수당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출산장려금 지급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오는 10월부터 일과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양육환경 조성을 위해 '출산장려 시범직장 만들기'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민·관·학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네트워크 및 협력체계 구축으로 '아이낳기 좋은 지역사회 조성' 위해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양수현기자 yang@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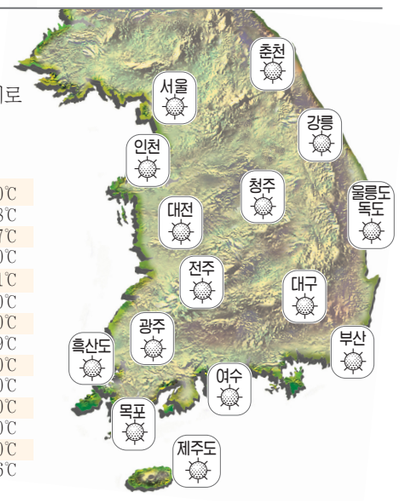
오늘 날씨

해뜸 06시 16분 해짐 18시 37분 달뜸 15시 08분 달짐 00시 23분

쾌청한 가을 하늘

고기압의 영향을 받아 대체로 맑겠다.

광 주	맑음	20/30℃
목 포	맑음	20/28℃
여 수	맑음	21/27℃
완 도	맑음	19/30℃
구 례	맑음	17/31℃
해 남	맑음	18/30℃
장 흥	맑음	18/30℃
고 흥	맑음	17/29℃
순 천	맑음	18/30℃
영 광	맑음	19/30℃
진 도	맑음	19/30℃
전 주	맑음	18/30℃
남 원	맑음	16/30℃
흑산도	맑음	20/26℃



〈오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1.0~1.5m

자외선지수	식중독지수	불쾌지수
높음	경고	높음

〈오후〉 바다	풍향	파고
서해 남부 앞바다	북동~동	0.5~0.5m
먼바다	북동~동	0.5~1.0m
남해 서부 앞바다	북동~동	0.5~1.0m
먼바다	북동~동	1.0~1.5m

	밀물	썰물
목포	08:56 22:25	03:13 15:03
여수	04:48 18:06	10:47 --:--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날 짜	18(토)	19(일)	20(월)	21(화)	22(수)	23(목)
날 씨						
최저/최고	20/30	21/28	20/28	21/28	19/26	17/24

광주시부교육감 박표진씨

교육과학기술부는 16일 박표진(55) 제주도부교육감을 광주시교육청 부교육감으로 임명했다.

박 신임 부교육감은 강진 출신으로 광주상고와 조선대를 졸업하고 1974년 전남대학교 근무를 시작으로 광주시교육청 관리국장, 교육부 감사과장·홍보과장, 한밭대학교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